

2017

2018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2017-2018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주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204호

Tel (82-2) 3277-2927, 3969 Fax (82-2) 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E-mail ewha21@ewha.ac.kr

03

총장 인사

06

2017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현황 보고

12

기부자 인터뷰

최비숙

금홍연

전송미

장선

최려나

김낙찬

익명의 편지

22

대외협력처 소식

이화아너스클럽 예우 행사

이화와 함께한 풍성한 1년간의 기록

‘발전기금 | 이화인’ 홈페이지 개편

함께해요 이화인! 프로젝트

32

기금 안내

이화여자대학교 기금 소개

이화미래전략기금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이화해피펀드

선배라면장학금

38

기부자 명단

고액 기부자 명단

전체 기부자 명단

44

예우 안내

이화도너스월

후원자 예우

46

후원 안내





Together, Tomorrow. Ewha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여성교육의 기적을 꽃 피웠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화가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빛나는 이화!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후원으로 이화는 오늘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화의 시작은 작은 기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도 조선의 여성교육에 관심조차 없던 시절, 미국인 할머니 볼드윈 여사가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며 쾌척한 현금이 1886년 이화 창립의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1935년 신촌 캠퍼스로 이전할 때도 많은 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그레이 부인이 신촌 대지 구입 비용 3만불을 선뜻 기부했고, 미국의 사회복지가인 파이어 부부가 먼 이국땅의 여자학교 건축비로 20만불을 후원했습니다. 전국의 교회에서는 '이화주알'을 만들어 부인들이 금반지와 시계 등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1940년대 초, 원산의 70대 촌부였던 주태경 여사는 이화학당 범인 설림에 쓰라며 평생 모은 재산 10만원(현 100억원 상당)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기부로 일제의 거센 탄압에 동전등화 같았던 여성교육의 촛불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화 역사에는 이렇듯 매 순간마다 많은 이들의 사랑과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잘 알고 있기에 이화는 지난 132년간 '시대를 이끈다'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한국의 여성교육을 앞장서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최초', '세계 최대의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수식어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학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교육을 선도하며, 소통과 신뢰로 공동체 윤리의식을 추구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화가 그 사랑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빛나는 이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이화인의 자부심,
한국의 자랑,
인류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희망을 모아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132년 여성교육을 선도해온 도전정신으로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화가 다시 이화인의 자부심이자 한국의 자랑, 나아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에 더 나은 이화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현황 보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후원자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화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2017.3.1~2018.2.28) 이화의 발전기금 모금현황과 사용현황을 보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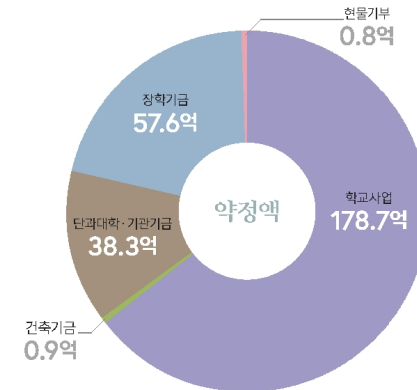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17년 기부금 현황



약정현황

기간: 2017.3.1 ~ 2018.2.28

구분	세부항목	약정금액	비율
현금기부	발전기금	17,870,128,989	64.67%
	건축기금	94,719,278	0.34%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3,832,185,697	13.87%
	장학기금	5,757,313,073	20.83%
합계		27,554,347,037	
현물기부		78,742,125	0.29%
총계		27,633,089,162	



학교사업

기금명	약정금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7,730,140,119
이화해피펀드	139,988,870
계	17,870,128,989

건축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신축기속사건립기금	94,719,278
계	94,719,278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기금명	약정금액
이화미래의학연구기금	2,000,000,000
음악대학공간미래화조성기금	300,000,000
의과대학교육인프라구축기금	201,637,349
약대건축기금	175,900,000
간호과학관건축기금	172,114,408
그 외 57개 기금	982,533,940
계	3,832,185,697

장학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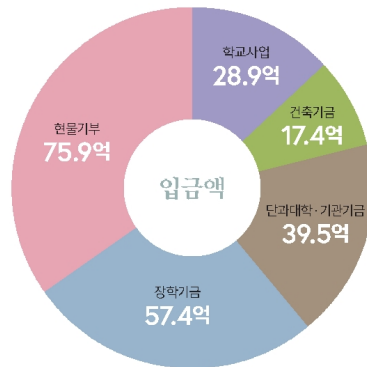
기금명	약정금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643,833,844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786,859,460
선배라먼장학금	192,409,769
EGPP장학금	134,210,000
계	5,757,313,073

모금현황

입금현황

기간: 2017.3.1 ~ 2018.2.28

구분	세부항목	입금액	비율
현금기부	발전기금	2,893,218,189	13.20%
	장학기금	1,738,634,105	7.93%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3,946,184,097	18.01%
	장학기금	5,738,143,096	26.18%
합계		14,316,179,487	
현물기부		7,598,742,125	34.67%
총계		21,914,921,612	



학교사업

기금명	입금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2,847,364,319
이화해피펀드	45,853,870
계	2,893,218,189

건축기금

기금명	입금액
신축기숙사건립기금	1,734,039,105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4,295,000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기금	300,000
계	1,738,634,105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기금명	입금액
이화미래의학연구기금	2,000,000,000
음력대학공간미래화조성기금	300,500,000
간호과학관건축기금	233,310,308
약대건축기금	171,357,500
의과대학발전기금	136,318,400
그 외 75개 기금	1,104,697,889
계	3,946,184,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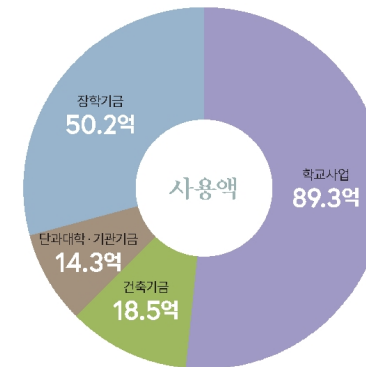
장학기금

기금명	입금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622,085,067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848,903,260
선배라면장학금	192,944,769
EGPP장학금	74,210,000
계	5,738,143,096

사용현황

기간: 2017.3.1 ~ 2018.2.28

구분	세부항목	사용액	비율
발전기금	학교사업	8,931,087,349	51.82%
	건축기금	1,851,317,717	10.74%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1,429,989,414	8.30%
장학기금	장학기금	5,020,782,340	29.13%
합계		17,233,176,820	



학교사업

기금명	사용액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7,307,076,629
이화오투기어린이집기금	1,479,089,490
북한여성교육기금 외	144,921,230
계	8,931,087,349

건축기금

기금명	사용액
신축기숙사건립기금	1,836,384,096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기금	14,933,621
계	1,851,317,717

단과대학 및 기관기금

기금명	사용액
이화미래의학연구기금	970,910,142
경영대학발전기금	55,233,529
의료학과발전기금	30,856,533
이화-괴팅겐국제교류기금	28,000,000
음악대학기금	27,017,995
그 외 40개 기금	317,971,215
계	1,429,989,414

장학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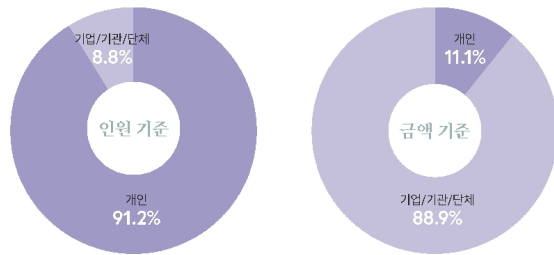
기금명	사용액
개인 및 기관 후원 장학금	4,164,143,419
각 대학 및 학과별 동창회 장학금	560,444,121
선배라면장학금	181,994,800
EGPP장학금	114,200,000
계	5,020,782,340

2017년 후원자 분석

작성기준: 약정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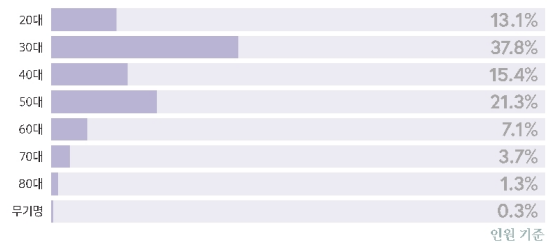
기부주체별

기부주체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개인	2,200	91.2	3,063,265,268	11.1
기업/기관/단체	213	8.8	24,569,823,894	88.9
계	2,413	100.0	27,633,089,1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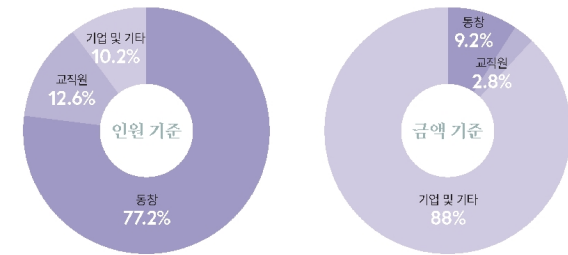
기부자 연령별 (개인기부자에 한함)

기부자 연령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원)	비율(%)
20대	289	13.1	58,284,000	1.9
30대	832	37.8	234,235,450	7.7
40대	338	15.4	564,712,000	18.4
50대	469	21.3	711,207,996	23.2
60대	157	7.1	686,732,380	22.4
70대	81	3.7	585,649,134	19.1
80대	28	1.3	197,844,151	6.5
무기명	6	0.3	24,600,157	0.8
계	2,200	100.0	3,063,265,2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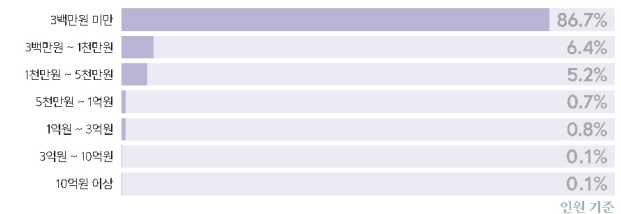
이화관계별

이화 관계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	비율(%)
동창	1,862	77.2	2,530,818,547	9.2
교직원	305	12.6	775,839,510	2.8
기업 및 기타	246	10.2	24,326,431,105	88.0
계	2,413	100.0	27,633,089,162	100.0



약정금액별

약정금액	인원(명)	비율(%)	약정금액	비율(%)
3백만원 미만	2,093	86.7	751,664,346	2.7
3백만원 ~ 1천만원	154	6.4	718,139,928	2.6
1천만원 ~ 5천만원	126	5.2	2,325,198,177	8.4
5천만원 ~ 1억원	17	0.7	1,114,815,453	4.0
1억원 ~ 3억원	19	0.8	2,782,367,484	10.1
3억원 ~ 10억원	2	0.1	940,903,774	3.4
10억원 이상	2	0.1	19,000,000,000	68.8
계	2,413	100.0	27,633,089,162	100.0



이화는 내 인생의 행복 충전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이화

2017년 12월, '갤러리 라이프' 관장이자 당시 의류직물학과(現 의류산업학과) 동창회장이었던 최비숙 동문(의직 80졸)이 이화여대를 찾아 '의류산업학과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학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는 최 관장에게 기부 계기에 대해 좀 더 물었다. “제가 이대에서 시간강사를 할 때 이대 후배들의 학습능력이 참 뛰어났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성 지도자로 크게 될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죠. 그런 후배들이 꿈과 능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최 관장의 열정 있는 목소리와 화사한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기분 좋게 했다. “그리고 이화는 저에게 큰 행복을 준 곳이에요. 학부, 석사, 박사 그리고 시간강사까지... 20년을 이화 교정에서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며 보냈던 시간, 밤새워 동아리 사진전을 준비했던 추억 등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새로움과 다름의 공간 '갤러리 라이프'

최비숙 관장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을 이뤄 지난 2016년, 환갑을 기념하며 '갤러리 라이프'를 개관했다. “갤러리를 열 때 컨셉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왕이면 도전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해주고 싶었죠. 기성 원로작가 분들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전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새로움과 다름을 추구하려고 도전하는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갤러리가 그들에게 소중한 발판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을 볼 때면 제자이자 후배들 같아서 더 애정이 간다는 최 관장. 최 관장의 열정과 젊은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의류산업학과에서 배운 콜라보레이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움. 최비숙 관장이 작가들을 지원할 때 그림을 보는 관점이 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최 관장의 전공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류직물학과(現 의류산업학과)에서는 디자인, 직조, 드로잉, 염색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이 분야들을 함께 접목한 콜라보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창의력도 키울 수 있었구요.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펼치는 실력 있는 의류산업학과 후배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기쁘고 반가워요. 앞으로도 이런 융합형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낸 의류산업학과기금도 거기에 작은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화 안에서 꿈을 키우고 이화를 통해 그 꿈을 실현시킨 최 관장. 그녀의 바람대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화에서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

글 | 정세진



최비숙

갤러리 라이프 관장 • 의직 80졸

최선을 다해 벌고 최선을 다해 주라

의식주가 해결되면 나누며 살아야

‘최선을 다해 벌라.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라.’ 금홍연 동문(화학 79졸)은 40대 초반, 새벽예배 중에 처음 들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듣는 순간 가슴에 쿵 박히더라고요. 그날 다짐했습니다. 물질의 삶은 어느 수준이 되면 만족하겠다고. 그 이상은 쌓지 않고 나누며 살겠다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금 동문의 다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 동문은 봉제사업을 하던 남편 강건 씨를 따라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17년째 살고 있다. 먼 타국에서도 “먹고 살만큼 벌면 모두 나뉘야 한다”는 소신을 지켰다. 남편과 함께 현지인을 위한 교회를 짓고, 병원을 후원하고, 한국인을 위한 교회도 지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귀국하자마자 모교에 화학·나노과학전공 발전기금 9만 달러(한화 1억6천만원)를 쾌척했다. “남편이 환갑일 때 모교에 기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환갑 때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도통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학교에 전화했어요. 기부하겠다고요.” 그녀의 기부 동기가 참 심플하다.

기도는 나의 힘

금 동문은 이화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2학년 때 어머니와 이별했다. 막막했던 시절, 채플시간에 우연히 들은 찬송가가 그녀를 인도했다. “감람산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곡이었는데 가사가 정말 제 처지와 같은 거예요. 그길로 무작정 기도실에 찾아가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도 운동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녀는 매일 1시간 새벽기도를 40년째 이어오고 있다. “친구들은 제가 낙천적이에요. 늘 웃어서 그런가 봐요. 남편 사업도 큰 일 없이 꾸준히 성장했구요. 근데 저라고 쉬웠겠어요. 고난을 기도의 힘으로 넘긴 거지요.” 기도는 그녀의 삶을 관통했다. 어떤 일도 피하거나 정장대지 않고 평상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사실 금 동문은 오랫동안 치매인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했다. “물론 힘들지만 울고 짜고 안 했어요. 제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그런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했어요.”라며 담담하게 미소 짓는다. 이 또한 기도의 내공인가 싶었다.

역시, 우리는 이화

금 동문은 이대 출신이어서 좋은 이유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늙을 수 있어서’라고 했다. 폰대 노트를 하지 않고 늘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소통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역시 우리는 이화’라는 자부심이 든다고. “지금 학교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화가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 이화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어요.” 모든 22만 동문이 십시일반에 나서야 한다는 금 동문. 그녀의 말 속에 이화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

글 | 김효정



금홍연

화학 79졸

더 이해하고, 더 나누는 삶

‘필요한 것은 다시 채워진다’는 믿음

“이화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대부초, 이대부중, 이화여대까지 학창시절의 4분의 3을 이화에서 보냈고, 여성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도 이화 안에서 만들어 준 많은 인연들의 도움이 있었다. 전송미 (㈜딜라이트디앤씨 대표(영문 83졸))가 2018년 1월, 모교 이화를 방문해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필요한 것은 늘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필요하면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약간 무리를 했어요.” 전송미 대표는 이번 기부에 대해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보였다.

영문학도에서 종합건설회사 대표로

전송미 대표가 경영하는 (주)딜라이트디앤씨는 종합건설회사다. 유학을 다녀와서 인테리어 설계분야에서 일하다 40대에 독립해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외곽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건설, 소방, 설비, 전기, 통신 등 하나씩 면허와 조건을 갖추다 보니 어느새 종합건설회사가 되어 있었다. 사실 전송미 대표는 이화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영문과 은퇴교수이신 나영균 교수, 언니는 현직 영어영문학부 전수용 교수다. 미국에 사는 큰언니도 이대 영문과 출신. 네 모녀가 이대 영문과 출신인데, 그녀는 졸업 후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과감하게 전공을 바꿨다. 그런데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인문학을 선택할 것 같다. “디자인은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순수미술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깊은 전제가 있다. 아마도 4년간 인문학도로서의 대학생활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이 아닐까.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전송미 대표가 학교에 다닐 때 5·18이 있었고, 휴교를 많이 했다. 우리가 외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회의적인 생각에 학생운동과는 담을 쌓았다. 어머니가 엄격하셔서 미팅 금지, 동아리 금지, 6시 통금의 규율 가운데서도 몰래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졸업하고 보니 스스로가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화가 4년간 드러내놓고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감 있게 사는 법을 스며들 듯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은 자연스레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나만 잘되기 위해 주변을 밟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가장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남을 이해하려 해보고, 자기의 욕심을 조금만 더 버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물으며 활짝 웃어 보였다. 글 | 강혜승



전송미

(주)딜라이트디앤씨 대표 · 영문 83졸

과동창회에서 맺은 EGPP 인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길”

후원자 장선 前인촌재단 이사장 · 영문 72줄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영문과 총동창회 행사에서 교수님이 한 학생을 소개하셨습니다. 큰 화상을 입어 수십 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정말 소중한 학생이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된 학생이 바로 최려나 학생이었다. 장선 前인촌재단 이사장(영문 72줄)은 최려나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연은 시작되었다.

최려나 학생은 EGPP장학금을 받은 이후 편지로 장 이사장에게 안부를 전하곤 했다. 올해 2월, 장 이사장 앞으로 또 한 번 긴 손편지가 도착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료 받는 환자에서 어느 또래처럼 여대생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꿈을 향해 걸어가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편지를 받은 장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건강하게 학업을 마친 최려나 학생에게 오히려 더 고맙다고 했다.

“최려나 후배처럼 EGPP장학생들이 이화에서 잘 공부해 글로벌 여성인재로 성장한다면 그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요. EGPP장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여성리더로서 세상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 이사장은 제2의 최려나를 키우기 위해 또 한 명의 EGPP장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금은 이화가 받은 사랑과 130여 년간 축적한 교육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 여성인재들을 선발해 본교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체류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교와 후원자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한 학생을 글로벌 여성리더로 키웁니다. 현재까지 39개국 242명의 학생을 선발해 1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장 이사장이 장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된 바탕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사범학교 출신이셔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니,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 이사장을 포함한 4남매는 2013년 부모님(아버지 故장용인 님, 어머니 故이춘희 님)의 이름을 한 자씩 딴 ‘인촌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해오고 있다. 장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2000년부터 본교에 SUN장학금을 비롯해 자신의 호를 딴 우향(又香)장학금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좌절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게 해준 나의 이화”

EGPP장학생 최려나 · 영문 18줄

“누워서만 지낼 때에는 앉아 있게 되기를 기다렸고, 앉아 있게 되어서는 설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는 걷기를, 밖에 나가기를,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딱 10년 만이었다. EGPP장학금 덕분에 최려나(영문 18줄) 학생은 꿈에 그리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중국 국적의 그녀는 11살 때 불의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고, 이후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과 집을 오가던 중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최려나 학생. 그녀는 간절했던 만큼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냈다. 그 결과 지난 2월 생애 첫 졸업식을 앞두고 장 이사장에게 두 번째 편지를 전했다.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니 저의 4년 학부생활도 끝났습니다. 좌절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게 해준 이화, 이화에서의 4년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지난 시간의 소회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화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어 본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최려나 학생. 따뜻한 봄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앞날에 꽃길 이어지길 응원해본다.

글 | 이현주



딸바보 아빠의 사랑법



김낙찬
현재어학원 이사장

바야흐로 딸들의 전성시대다. 덕분에 대한민국에는 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는 ‘딸바보’들이 넘쳐난다. 김낙찬 현재어학원 이사장 역시 스스로를 ‘딸바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운영하는 어학원도, 학원 건물명도 딸 이름을 따서 ‘현재’라고 붙였다. 심지어 한 학기에 한 명씩 전액등록금을 후원하고 싶다며 이화여대에 기탁한 장학금 명도 ‘현재장학금’이다. 가히 딸바보 계보의 정점이다. 이런 아빠를 보고 딸이 가끔 “내 이름을 너무 판다”고 투덜댄다고.

사실 현재라는 이름은 ‘어진 재상이 되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Now)에 충실하라’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지는 것은 제 인생 모토예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매일매일 현재를 성실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충실한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김낙찬 이사장에게 교육은 사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7번 감사기도를 드린다. 내일 있는 학원 경영을 위해 매일 직접 문법책도 집필하고 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성경말씀이 있어요. 사업은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날에 충실할 뿐입니다.”

김 이사장은 2011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매년 1억원을 후원하고 있다. 작년 모친 별세 후에는 어머니께 드렸던 용돈을 모아 이화여대에 현재장학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는 용돈 드리면 바로 충북 꽃동네에 기부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정신을 배우고 따라하는 거지요”라며 겸손해했다.

“제 딸이 이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동문 교수님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해보겠다는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딸뿐만 아니라 많은 이화의 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 딸을 사랑해서 다른 딸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한 김낙찬 이사장. 딸바보 아빠의 사랑법이 참 근사하다.

글 | 김효정



익명의 편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 까미유피사로장학금 600만원 약정

2018년 1월경, 대외협력처에 e-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35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밝힌 한 동문이 익명을 요청하며, 매달 50만원씩 입금해 까미유피사로장학금 6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담당자는 궁금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떤 계기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걸까? 다시 메일을 보내
그녀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후원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넘었네요. 지지도록 전략을 짜고, 협업 파트너들한테 음소도 하고, 하루 종일 “답이 어의지 않아 죄송하다”를 반복하거나, 조직생활을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달래면서 월급날 하루, 휴~하고 긴 숨을 내뿜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부터 하자면 내놓기 부끄러운 종잇장 같이 얇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후원약정서 ‘예우등’ 란을 두고, 하나님께 단지 저를 통해 하시는 일에 제가 예우를 받아도 될까 며칠을 고민했는데, 결국 도서관ID 예우의 유혹을 견지 못하고(창피하네요...) 이름만 지우고 예우해달라 타협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무척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장학금명이 ‘까미유피사’인 사연이 궁금합니다. 화가 이름이 맞나요?

화가 이름 맞습니다. 이름은 ‘불리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데, 어느 후배님이 훗날 ‘유일하게 학창시절에 받은 장학금이 OO장학금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창피한 이름만은 아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왜 까미유피사로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는 그의 작품이 좋고, 어느 인생에나 끈질기게 찾아오는 나태와 무력감을 성실함 하나로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자, 거룩이 될 후배들에게 영감을 불러 넣을 인물이라 더 좋아합니다. 지금 스스로 확신조차 없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허우적거리는, 풋콩 후배들 중에서도 피사로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원자님께 이화란?

외부와 내부의 편견에 대항하고, 코너에 몰려도 인격을 내버리지 않으며, 가짜가 아닌 진짜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부드러움을 세련된 강인함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치는 첫 과정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하나 목록지 않는 경쟁의 연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무력감과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내린 유일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고 하지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야 좋은’ 옵션일 뿐입니다. 남에게 잘보이려는 삶, 경쟁에서 짓밟아 이기는 삶만이 칭송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화에서 ‘평균 이상’의 기준을 가진 이들이 유독 많아 보이고, 그에 비해 자신은 평범을 넘어 초라하다고 느껴진다면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과시할 수 있다’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지 않은지 내면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하는 이도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면 기대를 뛰어 넘는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의 모든 후배님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왜곡된 것대로 낮추어보는 미련한 작시를 견어내고 단단하고 여유로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이화아너스클럽 예우 행사

이화아너스클럽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이화에 큰 사랑을 전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2년에 발족한 이화의 특별한 기부자클럽이다. 현재까지 275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학교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2017 이화아너스클럽 만찬

2017년 11월 16일(목) '2017 이화아너스클럽 만찬'이 개최되었다. 방송인 서경석 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는 아너스클럽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숙 총장의 환영사,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의 학교 주요 모금사업 소개, 축하공연, 이화아너스클럽 소개,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이화는 사랑과 믿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면서 "새로운 이화를 만드는, 모두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1부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뮤지컬 공연

〈맨 오브 라만차〉의 곡들로 채워졌고, 2부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건축과 사회의 의미망을 탐구하는 유현준 교수의 강의는 참석자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한 회원은 "평소에 보기 힘든 수준의 공연과 강연을 만날 수 있는 아너스클럽 행사여서 늘 기대감을 갖고 참석한다. 오늘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차고 즐거운 행사였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예비 아너스클럽 회원 분들도 아너스클럽에 가입해서 학교 발전과 나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아너스클럽 특별 예우

학교 모금사업에 총 1억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2006년 이후 약정이 있는 후원자에 한함)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소 약정액의 20%(2천만원) 이상 납입 시 이화아너스클럽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회원자격

이화眞
10억원 이상
후원

이화 眞
3억원 이상
후원

이화 眞
1억원 이상
후원

예우 프로그램

이화아너스
클럽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총장초청
오찬·만찬
초대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근조기
서비스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이화아너스클럽 문화탐방, 환기미술관·한국가구박물관

2018년 4월 25일(수) 이화아너스클럽의 세 번째 문화탐방 행사가 열렸다. 아너스클럽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기미술관(부암동)과 한국가구박물관(성북동)을 방문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도심 속 문화의 향기와 봄날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평을 이끌었다. 환기미술관 '색채의 미학' 특별전 관람과 오찬에 이어 한국가구박물관 관람에서는 전문 도슨트의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참석자들이 한옥

의 아름다움과 고가구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뮤지엄산(원주시), 경기도박물관 및 백남준아트센터(용인시)에 이어 이번 환기미술관과 한국가구박물관까지, 올해로 3회를 맞는 문화탐방 행사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아너스 회원들에게 기다려지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품격 있는 주제로 아너스클럽 회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화와 함께한 풍성한 1년간의 기록

이화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이화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 동문, 교직원 등 다양한 이화가족과 함께 한 현장을 찾았다. 이화인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화 네트워크의 생생한 현장들. 그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들을 통해 이화와 함께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2017 은퇴교직원 초청 오찬

2017년 12월 7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2017 은퇴교직원 초청 오찬'이 열렸다. 오랜 시간 이화를 사랑해온 은퇴교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혜와 격려를 얻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은퇴교직원 80여 명을 비롯해 김혜숙 총장, 정문중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개회 기도, 김혜숙 총장의 인사말과 학교소식 안내 순으로 이어졌다.

김혜숙 총장은 "오래전 이화에서 처음 만난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서 뵈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시간의 길이와 깊이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며 "은퇴 선생님들의 지혜와 격려, 관심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성 공동체의 모습이 이화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는 학교가 실행할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이화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오찬 후 2부에는 특별강연이 마련되었는데, 송동훈 문명탐험가가 '배움, 상상, 영혼이 있는 여행-그랜드투어'를 주제로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더 넓은 세계와 배움에 대해 전하며 이화를 떠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은퇴교직원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은퇴교직원들은 행사 이후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참석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제10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 개최

'제10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가 2017년 9월 26일(화)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숙 총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배용 전 총장, 김선욱 전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 장학후원이사회 이사진과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혜숙 총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진행된 신규이사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총 19명이 새롭게 후원이사로 위촉됐다. 장학기금 현황보고에서는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이 장학금 모금현황과 새로 시작된 '이화의 장학금 이야기'와 '이해해피펀드'를 비롯한 대외협력처 신규모금 등을 소개했다. 오찬 이후에는 장학금 대표로 나한별 씨(약학·14)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7학년도 1학기 창원이화약국장학금을 수여한

나한별 씨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신 분들 덕분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5년에 장학후원이사로 위촉된 오혜숙 전 의과대학동창회장(의학·78졸)이 장학후원이사 대표로 화답했다. 오혜숙 이사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학교를 다니며 '훗날 장학기금을 마련해 후배들을 돕겠다'고 생각했다"며 후배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본교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주고, 나눔의 정신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학생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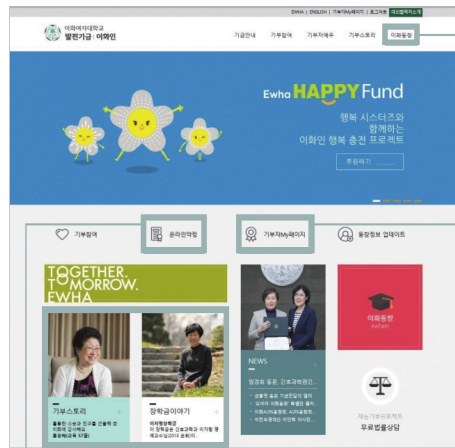
이화장학후원이사회 이화장학후원이사회는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교직원, 동창 등 이화가족의 모임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됐다. 장학금 5천만 원 이상 후원자를 이화장학후원회 이사로 위촉해 예우하고 있으며, 이화장학후원이사회를 개최해 장학기금 현황을 보고하고 장학생과 후원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발전기금|이화인’ 홈페이지 개편

대외협력처(처장 김훈순)에서는 2018년 4월 9일(월) 신규 ‘발전기금|이화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브라우저, PC, 모바일 등에 반응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들어와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곳.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이화인’ 홈페이지 속으로 함께 가보자.

기부자 서비스·이화동창 서비스 강화

이번 ‘발전기금|이화인’ 홈페이지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부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이다. 기부스토리, 기부 보고를 통해 동성한 스토리를 제공하고, 기부자My페이지, 현판 조회, 모바일 약정 등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둘째, 이화동창 서비스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화DNA네트워크, 동창서비스, 재능기부프로젝트, 동창정보업데이트 등 다양한 동창서비스를 한데 모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간편한 모바일 약정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모바일에서 바로 온라인 약정을 할 수 있다. 신용 카드나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다.

■ 기부스토리, 장학금이야기

사랑으로 이화를 응원해준 기부자 분들의 아름다운 나눔 스토리를 신설했다.



■ 이화인 Biz-Net

다양한 업종의 이화동창 가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코너인 이화인 Biz-Net도 신설했다. 지역별·업종별로 동창 가게 검색이 가능하며, 동창 가게 간의 상호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운영된다.



■ 기부자My페이지

본고 기부자일 경우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기부내역과 현판 조회, 기부금영수증 출력, 개인정보수정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 현판 조회

기부자 My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현판조회 랩에서 기부자의 모든 후원현판 내역과 사진, 후원현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화와 통하다! 다양한 모바일 채널 신설

모든 것이 모바일로 통하는 시대이다. 이제 모바일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바일 시대를 맞아 대외협력처는 이화가족과 보다 활발한 소통과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신설했다. 이화와 바로 통하는 즐거운 모바일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대외협력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오픈

대외협력처는 지난 2017년 11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이하 카톡플친) 서비스를 개설했다. 새롭게 선보인 카톡플친 서비스는 단방향에서 벗어나 각종 학교 소식, 공연·강연 정보와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화가족에게 보다 친근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를 검색하고 플러스친구 추가하면 된다. 2018년 5월 현재 총 4,600여 명이 카톡플친을 맺고 일상적으로 이화와 만나고 있다.



뉴스레터, 생일카드, 기금보고 등 모바일카드 문자 발송

이화의 후원자와 이화동창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외협력처는 모바일 카드를 제작하여 문자 발송하기 시작했다. 2017년 7월부터 동문 대상으로 매일 생일 축하카드를 문자로 보내는데 이어, 후원자 생일카드(2018.1), 졸업 축하카드(2018.2), 신규 후원 감사카드, 선배라면 기금보고(2018.3) 등 대상자별로 축하 및 기금보고를 문자로 발송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는 학교소식, 기금소식, 동창소식 등을 담은 대외협력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 제작해 기부자 및 동창들에게 분기별(연 4회)로 발송하고 있다. 이메일이 아닌 휴대폰 문자로 발송되어 가독성이 높고, 답장하기 등 상호소통도 가능하다. 특히 학교 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애교심과 기부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함께해요 이화인! 프로젝트

이화캠퍼스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이화동창들이 뭉쳤다! 작년 연말 동창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쓴다!'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이화캠퍼스에서 열린 특별한 홈커밍 행사 '모여라 이화동창'까지. 동창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대외협력처에서 시도한 새로운 동창 서비스 및 행사를 소개한다.

'모여라 이화동창' 행사

대외협력처는 2018년 5월 2일(수) '모여라 이화동창' 행사를 개최했다. '모여라 이화동창'은 동창들이 하루 동안 새내기가 되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대학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홈커밍 프로그램이다. 모교 사랑을 고취하고 동창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행사에 81학번부터 10학번까지 이화 동창 88명이 함께했다.

입학식은 장윤재 교목실장의 기도,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의 환영사, 김혜숙 총장의 입학식사, 참가자 대표의 입학선서, 교수 중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이화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대 의식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동창들은 채플에 참석해 이화인만의 특별한 추억을 되살렸고, 생활환경관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본교 김은실 교수(여성학과)가 '이화에 온 아시아의 여성들', 최재천 교수(생명과학과)가 '제4차 산업혁명과 통섭형 인재-아름다운 방향과 따뜻한 방목'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졸업식 '이화인,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에는 동문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사 모를 쓴 동창들이 아쉬움과 즐거움 속에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참가비 전액은 '이화해피펀드'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동창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쓴다'

대외협력처에서는 2017년 11월 동창 서비스의 일환으로 연말 동창 소모임 지원 캠페인 '모여라 이화동창, 이화가 쓴다!'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 동창 5~15인으로 구성된 모임이 연말에 개최될 경우 선착순 131개 모임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화동창의 폭발적인 참여로 선착순 131개 모임은 이벤트 오픈 1시간 만에 모두 신청 완료되었고,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추첨을 통해 131개 모임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 모임 일정에 맞춰 선물을 발송했다.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지난 2017년 10월 26일(목)~29일(일)까지 3박 4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Lighting The Future'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김혜숙 총장,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350여 명의 북미주 동창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음날 이어진 문화행사에서는 각 지회 동문들의 합창, 악기 공연 등이 펼쳐져 화합의 분위기가 더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주 지역 내 이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교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이은 해외지회 방문

김혜숙 총장과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이 해외 각국의 동창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9월 홍콩지회, 동경지회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싱가포르지회, 5월 북경지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홍콩지회 17명(교황학생 3명 포함), 동경지회 6명, 북경지회 11명이 함께 자리했고, 특히 싱가포르지회의 경우 본교 교환학생 10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해외지회 방문은 이화글로벌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동창들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회 동창들의 이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2018.3. 싱가포르지회 방문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듭니다

이화의 정신은 진선미입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핵심가치입니다. 132년간 소중히 이어온 이화의 진선미 정신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세계 여성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들이 꿈을 키우는 '테크노 이화'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진선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이화미래전략기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 개혁,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대학 간 무한경쟁 등 최근 대학 경영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전략적인 판단, 미래교육에 대한 가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미래전략기금은 이화가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는 경영전략기금으로 이화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기금 용도

▶ 학교 비전 및 발전계획에 따른 최우선사업 사용 기금

“미래가 더 기대되는 대학, 테크노 이화입니다”

김혜숙 총장

지금은 과학기술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객관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2, 3차 교육모델은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화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무장한 ‘테크노 이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교육·연구·교육환경 등 모든 시스템을 4차 인프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지식을 새롭게 창출, 해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테크노 여성인재를 키움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기술사회’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화의 꿈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연구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바이오 기술 등 모든 과학 기술과 지식 정보 분야에 걸친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이화의 교수·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이화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이화의 우수 연구활동과 미래 학문분야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 용도

- ▶ 우수 연구 교원 및 석좌교수 지원
- ▶ 미래지향적 학문분야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 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의 연구·실험실습 환경 조성

“학제간 융복합, 창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근주 연구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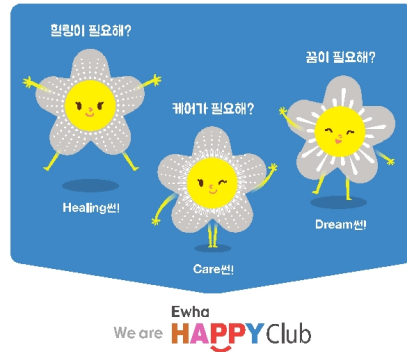
국내 초일류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존 학문의 탄탄한 기반 위에 이종 분야를 접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 학문분야를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창의주제 연구 등 4차 산업시대의 지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입교원에게는 실험실을 바로 셋업할 수 있게 연구비를 선지원함으로써 이화의 연구역량을 한층 레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금 안내

학생

이화해피펀드(Ewha Happy Fund)



이화해피펀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화를 꿈꾸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화인을 응원하는 기금입니다.

이화해피펀드는 서로 보살피는 건강한 이화 심리공동체 구현을 위한 Healing,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Care, 이화 안에서 미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Dream 파트 등의 학생복지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이화인의 행복 충전 프로젝트, 이화해피펀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정기후원 | 월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선택 가능
일시후원 | 제한 없음

기금용도

- ▶ 학생상담센터 확대 및 강화
- ▶ 온·오프라인 통합심리지원시스템 구축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 구축
- ▶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교환학생 생활비 지원
- ▶ 해외탐사프로그램 지원 등

“후배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언니들이 있습니다”

박정영 동문 (화학·나노 13졸 · 세메스 근무)



지난 가을에 학생복지기금인 해피펀드 출시 소식을 듣고 바로 정기후원 신청했어요. 왠지 '해피펀드'라면 그동안 힘들었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요. 저는 2015년 입사 1주년 기념으로 선배라면장학금을 후원했는데 5년차인 올해부터는 좀 더 해보자는 마음에 거금 5만원을 해피펀드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선배라면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기쁨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후배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학

선배라면장학금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한 달에 만 원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이화의 소액 장학금 모금캠페인입니다. 선배라면은 이화의 아름다운 정서와 문화가 담긴 이화만의 특별한 장학금입니다. 수많은 이화 선배들의 사랑이 모여 기적의 장학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배라면장학금 모금액은 학과별로 집계되어 후원자의 전공 후배들에게 매 학기 바로 지급되어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만원씩 후원하는 선배 만명이 모이면 매년 1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채워나갈 만명의 이화 선배를 기다립니다.

후원방법

정기후원 | 월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선택 가능

후원예우

- ▶ '이화도너스월(Ewha Donors Wall)' 디지털월에 '선배라면 후원자' 이름 남김

“8년차 선배라면 장기후원자랍니다”

강민정 동문 (정외 05졸 · 육아휴직 중)



2011년에 선배의 소개로 선배라면과 인연을 맺게 돼서 지금까지 8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기 후원자로서 선배라면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쉬지 않고 꾸준히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소액으로 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담도 적고 금액도 자유로워서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요즘 육아로 바쁜 와중에 문자로 날아온 선배라면장학금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꼼꼼히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라면의 따뜻하고 진한 사랑이 후배들에게 널리 전달되기 바랍니다.

이화의 비전을 찬란하게 빛내준 소중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정기간 2017.6.1 ~ 2018.5.31

발진기금

곽삼근
교육학과 교수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

금홍연
화학 79졸

화학·나노과학전공
발전기금
9만 달러

김건희
간호학부 교수

간호과학관건축기금
1억원

김혜숙
총장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억3천36만원

배성희
간호학부 교수

간호과학관건축기금
5천만원

안현정
학부모

사회교육전공 발전기금 외
1억5천만원

윤순자
ALPS 21대 회장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

이희승
의학과 교수

이화발전기금 외
5천4백6십만원

임경희
간호 80졸

간호과학관건축기금
1억원

전승미
영어영문 83졸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

최비숙
의료직물 80졸

의료산업학과기금
1억원

(재)흥한재단
이사장 박병식
음악대학
공간미래화
조성기금
3억원

시카고지회 동창회

신속가속사건합기금
5만 달러

이영회연합회

이화미래전략기금
1억원

이화국제재단

Pfeiffer Fund 기금 외
23만2,605달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미래전략기금 외
1억5천만원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45기

이화미래전략기금
6천만원

장학기금

유중근
영문 67졸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경원문화재단장학금 외
5천3백1십만원

송유재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회장학금
1억원

신경희
약학 51졸

약학대학1060장학금
1억원

신승애
물리학과 명예교수

나눔장학금
8천6백만원

현정옥
간호 67졸

최신실장학금 외
9만 달러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발전후원이사회

EGPP(글로벌미래평생
교육원)장학금
8천만원

남촌재단
교문 이주영

남촌장학금
1억원

삼성품장학재단

EGPP(삼성품장학재단)장학금
5천7십만원

석전육영재단
이사장 이인혁

정연수장학금
5천만원

성주재단
이사장 김성주

EGPP성주재단장학금
1억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

SK사회혁신장학금 외
2억5천만원

전체 기부자 명단

이화의 꿈을 든든하게 키워준 소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정기간 2017.6.1 ~ 2018.5.31

이화의 미래가 희망으로 꽃필 수 있도록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신 분들입니다.

이화는 여러분의 소중한 힘으로 '함께 빛나는 이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3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강학수	구희선	김기정	김민지	김소정	김영신	김은미	김지민	김피라	김홍희	류경미	박경옥	박성주	박은애	박혜란	부아름	손의성	신수래	안예슬	오가혜	원현정
	양훈진	윤혜정	강학수	구희선	김기정	김민지	김소정	김영신	김은미	김지민	김피라	김홍희	류경미	박경옥	박성주	박은애	박혜란	부아름	손의성	신수래	안예슬	오가혜	원현정
	오혜숙	강현일	이명하	가소희	강현주	권경형	권남익	김민지	김소정	김영인	김은선	김지선	김피라	김홍희	류다현	박은지	박혜림	부지원	손윤지	신수아	안용지	오경아	원혜성
	오영근	강혜란	이영하	강찬호	강현주	권계호	김남익	김민진	김소현	김영재	김은수	김지선	김피라	김홍희	류연옥	박은지	박혜림	서기림	손지원	신수정	안유숙	오경영	유가환
1억원 이상	우소연	고은자	이은경	강길영	강현주	권남익	김남영	김백한	김소희	김영주	김은아	김지수	김피라	김홍희	류경효	박은지	박혜림	서민	손혜경	신연숙	안윤진	오민하	유경희
	유다은	권소영	이은정	강나래	강혜선	권민지	김남희	김보경	김수정	김영주	김은애	김지숙	김피라	김홍희	류주희	박은희	박혜림	서문경	손은희	신영애	안예정	오보화	유근선
	유혜영	유혜영	이연영	강남희	강예슬	권재민	김남경	김보경	김수정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주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금홍연	육명희	김경주	이재경	강다영	강혜원	권수연	김다나	김보경	김수미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김민희	윤영희	김진경	이재성	강다영	강혜원	권수연	김다나	김보경	김수미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김혜숙	이경숙	김세화	장준희	강다위	강혜원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송유재	이정순	김영실	장현숙	강희숙	강효숙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신정희	이영화	김은정	전지현	김다미	강규영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안현정	이영희	김은미	장경화	강미정	강아영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윤순자	이미혜	김은하	장명숙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임정희	이숙현	김정숙	장민경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전순미	이순남	김정순	장민경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최비숙	이정훈	김정혜	장민경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이정훈	김정혜	장민경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이정훈	김정혜	장민경	강민경	강주현	권아름	김다솔	김보미	김수연	김영주	김은영	김지연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5천만원 이상	이태호	김지영	조미연	강민지	계은정	권은주	김명진	김세별	김숙영	김예지	김정영	김지현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이태호	김지영	조미연	강민지	계은정	권은주	김명진	김세별	김숙영	김예지	김정영	김지현	김피라	김홍희	류현정	박은희	박혜림	서민정	손은정	신영경	안예영	오보희	유근숙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이태																						

예우 안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곳, 이화도너스월(Ewha Donors Wall)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 있다. ECC 지하 4층에 설치된 '이화도너스월'이 바로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이곳에는 이화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준 후원자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화의 모든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곳은 이제 이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다.



아날로그월 Analogue Wall

아날로그월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위한 특별 예우 공간이다. 기부자의 이름은 고급스럽고 견고한 스틸 명패에 새겨지며, 후면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빛으로 이름을 새긴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기부 금액에 따라 블록의 크기와 돌출 정도를 다양화하여 조형적으로 배치하며, 1년에 한 번씩 납입 현황에 따라 명패를 신규 제작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디지털월 Digital Wall

디지털월은 작은 후원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화의 정신을 담아 모든 후원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키오스크(Kiosk)와 연동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대형 화면에 후원자의 이름이 아름다운 배킷 모션그래픽으로 구현된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의 경우, 사진과 기부스토리 영상을 함께 수록하여 보여줌으로써 찾아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동 예우

- 후원 감사카드, 모바일 생일축하카드 발송
-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이름 남김
- 이화도너스월(아날로그월)에 이름 남김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특별 예우

2018년 3월 현재

예우 내용	밀알 (3백만원 이상)	나눔 (1천만원 이상)	섬김 (5천만원 이상)	**Ewha Honors Club		
				이화 꽃 (1억원 이상)	이화 숲 (3억원 이상)	이화 뿔 (10억원 이상)
후원자 이름 남김	장학기금 명명	●	●	●	●	●
	건축기금 후원 시 후원자 기념판 등재	●	●	●	●	●
	건축기금 후원 시 후원기념 헌판 부착		●	●	●	●
인터뷰 예우	이화도너스월(아날로그월)에 이름 남김*			●	●	●
	후원 공간 명명				●5억원 이상	●
	이화소식,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기사 게재		●	●	●	●
특별 초청 및 위촉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인터뷰 수록*			●	●	●
	장학후원자사회 이사 위촉 및 행사 초청		●	●	●	●
	이화아너스클럽 회원 위촉 및 특별행사 초청**			●	●	●
무료 이용 (1가구/기업 당 1건)	장학기금 총장공관 오찬 초청		●	●	●	●
	기금전달식 개최			●	●	●
	도서관 무료 대출증*	●	●	●	●	●
각종 검사 예우	학교 무료 주차증		●	●	●	●
	이화도너스월 및 성탄카드 발송	●3년간	●	●	●	●
	학교 소식지(이화소식) 발송	●	●	●	●	●
	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	●	●
	장학기금 후원자 감사패 증정*		●	●	●	●
	신규후원 감사선물 및 감사장 증정		●	●	●	●

- ▶ * 표시된 예우는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에 드립니다.
- ▶ **Ewha Honors Club(이화아너스클럽)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업에 총 1억원 이상 후원자(2006년 이후 약정이 있는 후원자에 한함)에게 자격을 드리며, 최소 약정액의 20%(2천만원) 이상 납입 시 특별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 ▶ 도서관 대출증 및 학교 주차증 발급은 대외협력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수정되는 예우 내용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원 및 학교시설 이용 예우

예우 내용		밀알 (3백만원 이상)	나눔 (1천만원 이상)	섬김 (5천만원 이상)	**Ewha Honors Club		
					이화 꽃 (1억원 이상)	이화 숲 (3억원 이상)	이화 뿔 (10억원 이상)
의료원*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15%	30%	40%	50%	80%
	직계 존비속	—	20%	30%	40%	60%	90%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본인	5%	15%	20%	30%	40%
	배우자	—	—	—	10%	20%	50%
	본인	—	5%	10%	20%	50%	무료
학교시설	영안실 이용	배우자	—	—	10%	20%	30%
	외래, 입원 우선권	—	●	●	●	●	●
	국제기숙사	본인	—	50%	50%	50%	50%
	교사리 수련관, 금관서원	본인 및 직계	5%	15%	30%	50%	50%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본인	10%	40%	50%	50%	50%
의료원	색채디자인연구소	본인	10%	10%	20%	20%	20%
	언어교육원	본인	—	20%	50%	50%	50%
	ECC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본인	—	—	—	50%	70%

- ▶ * 의료원 및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이용은 납입액 기준으로 예우에 드립니다.
- ▶ 의료원 원무과 및 해당 학교시설에서 후원자 ID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예우 내용을 확인해주시고요.
- ▶ 기공료(보철료) 및 진료재료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영안실 이용료는 영습료, 안저료, 빈시안대로, 수시 및 제반 용역비, 청소료를 말합니다.
- ▶ 진료비 감면(본인부담금) 할인율은 외래진료와 연간 180일 이내 입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 색채디자인연구소 수강료 할인: 색채디자인 전문가 인증교육과정, 전통색채·민화연구 교육과정 해당

후원자 ID카드 할인혜택



- 학교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후원자 ID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수정되는 할인 내용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할인혜택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5%), 박물관 기념품(10%), E-fee(5%), 도연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로(10%), 닥터로빈(5%), 리치몬드(5%), 카페 네스카페(20%),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검점(10~20%), 링크(10%)

후원 안내

이화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 참여방법과 세제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화여자대학교의 비전 실현에 큰 힘이 됩니다.

참여방법

후원 약정방법

01 오른쪽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 송부 신청서를 사진촬영 후, 휴대문 문자 1666-0531로 사진전송해 주세요.
우편 송부 신청서를 잘라 붙일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팩스 송부 신청서를 잘라, 팩스번호 02-392-3473으로 보내주세요.

02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약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giving.ewha.ac.kr>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후원금 납부방법

후원 신청서 작성 시, 납부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01 무통장입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40-001-081822	이화학당
KEB하나은행	048-22-01036-4	
우리은행	107-04-102624	

02 자동이체(CMS)

신청서 작성 시 거래은행명, 통장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기입해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3 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미주지역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으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1505, New York 10115
Tel (212)864-5759 Fax (212)864-2552 E-mail ewhafdn@gmail.com
담당자 송지예(Ji-yei Park, Executive Director)

세제혜택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이화여자대학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후원 안내 및 상담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금 종류 문의, 유증(유신기부, 공익신탁 등) 상담, 후원금 납부방법 안내 및 변경, 후원자 예우프로그램 등 궁금한 내용은 어떤 것이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문의 1666-0531 전화문의 02-3277-2927, 3969 이메일 ewha21@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상호명)	☐ 익명 희망		
생년월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주소 (☐ 자택 ☐ 직장)		
	전화 (자택)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직장 정보	직장명	부서	직위
본고 관계	☐ 동창 (전공 :) 입학/졸업년도) ☐ 교직원 (소속 :) ☐ 이화가족		

약정 정보

기부 용도	☐ 이화해피펀드_학생복지 ☐ 장학기금 (기금명:) ☐ 이화연구역량강화기금 ☐ 이화교육환경개선기금 ☐ 이화미래전략기금 ☐ 단과대학 기관기금 (기금명:)							
기부 금액	☐ 자유후원 _____ 원 ○ 일시납부 (납입예정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분할납부 (분납 횟수 : _____ 회, 월 분납액 _____ 원) ☐ 월 정기후원 ○ 20,000원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기타 ()							
납부 방법 선택	<table> <tr> <td rowspan="3">☐ 자동이체(CMS)</td> <td>은행명</td> <td>계좌번호</td> </tr> <tr> <td>예금주</td> <td>생년월일(사업자번호)</td> </tr> <tr> <td>이체일자</td> <td>○ 15일 ○ 30일</td> </tr> </table> ☐ 무통장입금 신한 140-001-081822 우리 107-04-102624 KEB하나 048-22-01036-4 (예금주: 이화학당) ☐ 교직원 급여공제 급여일(25일)에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매월 12일 이후 약정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공제됩니다.	☐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이체일자	○ 15일 ○ 30일
☐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이체일자	○ 15일 ○ 30일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V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V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우 동의 예우선물, 예우카드, 홍보책자, 이메일, SMS 수신 및 기부자 명단 게재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대외협력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따라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약정 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수집 항목	(1) 필수항목: 성명(성호명), 전화번호, 약정금액, 기부용도 (2) 선택항목: 주소, 이메일, 본고관계, 직장정보, 납부정보(기간, 방법, 일자)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기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 약정 신청 및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CMS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제공 목적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제공 항목	성명(성호명),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기부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대외협력처가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CMS 자동이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사항 고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및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정 방법



휴대폰 문자발송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
도자수신정보 번호로 발송
1666-0531



온라인 약정
발령기금 홈페이지의 온라인 약정
페이지에서 후원신청
<http://giving.ewha.ac.kr>



팩스 발송
약정서 작성 후 팩스로 발송
02-392-3473

□ □ □ □ □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EWHA WOMANS UNIVERSITY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204호

Ewha Womans University
Office of University Relations & Development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60

품찰하는 곳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연간보고서는 이화의 후원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후원의 결실을 전하는 기금보고서입니다.

발행인 김혜숙 발행일 2018. 7. 6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기획·원고 대외협력팀 편집·제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디자인 김리영
ISBN 978-89-7300-780-6 03300